

임기영 배짱투...곰 방망이 또 잠재웠다



29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17 타이어뱅크 KBO리그 한국시리즈 4차전 KIA 타이거즈와 두산 베어스 경기. KIA 선발 임기영이 역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시리즈 4차전 5.2이닝 6피안타 6탈삼진 무실점 호투...KIA, 두산에 5-1 승리하며 3승 1패



호랑이 군단이 거침없는 질주로 '불패 신화'를 위한 마지막 1승을 노리게 됐다.

KIA 타이거즈가 29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두산 베어스와의 2017 KBO 한국시리즈 4차전에서 '잠수함' 임기영의 배짱투를 앞세워 5-1 승리를 거두며 3연승을 달렸다.

25일 안방인 챔피언스필드에서 3-5 패를 당했던 KIA는 양현종의 완봉승에 이어 팻딘-임기영의 승리 릴레이 속에 시리즈 전적을 3승 1패로 뒤집었다. 2009년 이후 8년 만에 맞은 '가을 잔치'의 축포를 터트리기 위해서는 이제 1승만 남았다.

올 시즌 KIA 마운드의 '셋발'이 된 임기영의 과감한 피칭이 두산 방망이를 눌렀다.

자신의 생애 첫 포스트시즌 선발 등판이었지만 임기영은 착실하게 아웃카운트를 채워갔다. 1회말 2사에서 박건우에게 2루타를 허용했던 임기영은 '난작' 김재환을 1루수 땅볼로 처리하면서 첫 이닝을 끝냈다.

2회에는 1사에서 최주환에게 중전안타는 내줬지만 2개의 탈삼진을 뽑아내면서 역시 무실점으로 두 번째 이닝을 처리했다.

민병현과 오재원의 연속 안타로 맞은 3회 1사 1-2루에서는 박건우의 방망이를 헛돌게 한 뒤 김재환을 2루수 땅볼로 돌려보냈다. 4회 삼자범퇴 이후 선두타자 에반스를 내야 안타로 내보낸 5회도 무실점. 6회 박건우와 김재환을 각각 유격수 땅볼과 삼진으로 처리하면서 투 아웃까지 만든 임기영은 오재일을 우전안타와 우익수 실책으로 2루까지 내보낸 뒤 생애 첫 포스트 시즌 등판을 마무리했다.

임기영에 이어 등판한 심동섭이 불넷은 내줬지만 '절친' 김윤동이 우익수 플라이로 6회 세 번째 아웃

■한국시리즈 4차전 전적

KIA 2 0 0 0 0 2 0 1 5
두산 0 0 0 0 0 0 1 0 1
△승리투수=임기영(1승) △세이브투수=김세현(2세·이상 KIA) △패전투수=유희관(1패·두산)

■한국시리즈 3차전 전적

KIA 0 0 1 2 1 0 0 2 6
두산 0 0 0 1 0 0 1 1 3
△승리투수=팻딘(1승) △세이브투수=김세현(1세·이상 KIA) △패전투수=보우덴(1패·두산) △홀런=나지완(9회 2점·KIA) 에반스(7회 1점·두산)

카운트를 잡으면서, 임기영의 무실점(5.2이닝 6피안타 6탈삼진) 경기가 기록됐다. 타석에서는 버나디나의 신바람 질주가 눈부셨다.

1회 1사에서 '캡틴' 김주찬의 타구가 중견수 키를 넘기면서 2루타가 됐다. 3번 자리에 선 버나디나는 우측 선상으로 공을 보내면서 김주찬을 홈으로 불러들였다. 3루까지 내달렸던 버나디나는 이어진 최형우의 1루수 앞 내야안타로 홈에 들어오면서 득점까지 올렸다. 3회 두 번째 타석에서 중전안타로 멀티히트에 성공한 버나디나는 7회 다시 한번 타점을 수확했다.

2-0으로 앞선 7회초 이범호가 선두타자로 나와 이번 시리즈 12번째 타석 만에 안타를 신고하면서 추가 득점의 발판을 놔다. 김민식의 희생번트에 이어 김선빈의 불넷이 나오면서 1사 1-2루. 이명기의 타구가 좌익수에게 잡혔지만 김주찬의 땅볼 때 상대 유격수 김재호의 실책이 나오면서 1점을 보냈다. 그리고 4번째 타석에 선 버나디나가 이번에는 좌측으로 공을 보내며 4-0을 만들었다. 8회말 두산 에반스의 적시타로 1점을 내준 KIA는 9회초 김민식의 시리즈 첫 안타와 김선빈의 타격 방해 출루 등을 묶어 다시 1점을 보태면서 5-1 승리를 거뒀다.

/잠실=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긴장 안 되던데요” 4차전 MVP 임기영

“긴장 안 되던데요. 정규시즌하고 같아요.”

생애 첫 포스트 시즌이자 한국시리즈에서 승리투수가 된 KIA 타이거즈 임기영은 특유의 사투리 억양으로 무뎀답하게 소감을 밝혔다.

임기영은 29일 한국시리즈 3차전 선발로 나와 5.2이닝 무실점의 호투로 두산 유희관과의 맞대결에서 승자가 됐다. 불넷은 하나도 내주지 않은 임기영은 공격적인 피칭으로 6개의 탈삼진도 수확했다.

임기영은 “첫 한국시리즈인데 별로 긴장 안 됐다. 정규시즌 그냥 경기를 하는 기분이었다. 1회부터 편안했다. (김)민식이 형의 리드가 편했다. 내가 던지고 싶었던 것들을 바로 사인으로 나왔다. 생각이 잘 맞았다”며 배터리 김민식에게 승리의 공을 돌렸다.

완봉승으로 분위기를 끌어올 양현종도 승리 도우미가 됐다. 임기영은 “앞에서 잘 던져줘서 편하고 공격적으로 공을 던질 수 있었다. 현종이 형에게 앞선 등판에서 김재환과 오재일을 어떻게 승부했는지에 대해서 듣고, 어떻게 던지면 좋을지 물어봤다”고 말했다.

매 타자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던진 것도 주효했다. 팬들의 응원도 흥겨웠다.

임기영은 “매타자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했다. 뒤에 좋은 투수들이 있으니깐 믿고 하다 보니 좋은 결과가 나왔다”며 “경기장 분위기도 너무 좋았다. 한국시리즈라고 긴장되는 것은 없었는데 위기를 막고 내려올 때 (함성)에 한국시리즈를 하는 게 실감이 났다. 팔 상태도 좋고 불펜 투구도 가능하다. 우승을 위해 마지막까지 준비하고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언급했다.

/잠실=김여울기자 wool@



나지완

대타 홈런 나지완 “검색어 1위 캡처해 달라” 득점 세리머니 이명기 “이럴 때 해봐야죠”

덕아웃 T 특특

▲캡처 부탁해요

큰 경기에 강한 나지완이다. 나지완은 지난 28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두산 베어스와의 2017 KBO 한국시리즈 4차전에서 4-3으로 앞선 9회초 2사 3루에서 대타로 나와 ‘미스터 제로’ 김강철을 상대로 투런포를 날리며 주목을 받았다. 이 홈런은 이번 한국시리즈 9번째 타석 만에 나온 나지완의 첫 안타이자, 두산의 추격 의지를 꺾은 결정타였다. 또 2009년 한국시리즈 7차전에서 끝내기 홈런 포함 두 개의 홈런을 기록했던 나지완의 한국시리즈 통산 세 번째 홈런. “스타팅으로 못 나왔던 게 자국이 됐다. 감 독남께서 찬스 때 나갈 것이라고 하셔서 잘 준비하고 있었다. 방망이 짧게 잡고 때리는 데 주력했다”며 소감을 밝힌 나지완은 큰 경기에 강한 선수답게 “실시간 검색어 1위에 혹시 내 이름이 없나?”며 여유를 부렸다. ‘나지완’이 1위에 있다는 말에는 “캡처해서 보내달라”고 해서 사람들을 웃겼다.

▲“큰 경기에 강하다”로 뽑아주세요

완봉승 주인공 양현종만큼이나 주목을 받은 포수 한승택이다. 한승택은 지난 26일 2차전에서 선발로 출장해 양현종과 배터리를 이뤄 좋은 호흡을

과시했다. 28일 경기에서는 김민식에 이어 마스크를 쓰며 김세현의 생애 첫 한국시리즈 세이브 공을 받았다. 지난해 LG 트윈스와의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도 인상적인 활약을 했던 한승택은 “(김)세현이 형 작구가 워낙 좋았다. 공격적으로 승부하려고 했다. 긴장은 되지만 편하게 하려고 한다”며 웃었다. 한승택이 인터뷰를 하는 모습을 본 투수 임기영은 “제목 나왔네. 큰 경기에 강하다로 뽑아주세요”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긴장하다 보니까

KIA 마무리 김세현이 ‘긴장감’이 한국시리즈 활약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1차전에서 1이닝 1탈삼진으로 넥센 시절이었던 2014년 이후 두 번째 한국시리즈 피칭을 한 김세현은 28일 3차전에서는 4-3까지 쫓긴 8회말 2사 1-3루에 나와 급한 불을 끈 뒤 9회도 삼자범퇴로 막으면서 한국시리즈 첫 세이브를 기록했다. 앞서 자체 홈백전에서는 구위가 좋지 못했던 김세현이지만 진짜 무대가 시작되자 특유의 힘 있는 작구로 상대를 압박하고 있다. 김세현은 이에 “경기 긴장감도 생기고 공을 던지다 보니 컨디션이 좋아진 것 같다”며 “8회 긴장된 상황을 막고 나서 짜릿했다. 9회초 (나)지완이 형이 투런 홈런을 쳐줘서 편하게 할 수 있었다. 운이 좋았다. 또 야

구장 절반이 붉은색이었다. 팬들의 열광적인 응원도 선수들에게는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이럴 때 해봐야죠

이명기가 생애 첫 한국시리즈 무대에서 정규시즌의 활약을 이어가고 있다. 올 시즌 트레이드를 통해 KIA 유니폼을 입은 이명기는 토타자로 맹활약하며 KIA의 정규시즌 1위를 이끌었다. 한국시리즈 3차전에서는 0-0이던 3회 2사 2루에서 1타점 2루타로 6-3 승리의 결승타 주인공이 됐다. 이명기는 이날 5회에도 2루타로 출루한 뒤 득점에 성공하기도 했다. 적시타를 때리고 난 뒤 또 홈에 들어오면서 두 손을 번쩍 들고 제스처를 취했던 이명기는 “이럴 때 (세리머니) 해봐야죠”라며 웃었다. 이명기는 29일 4차전에서도 1사 2루에서 기습 번트 안타를 기록한 뒤 환호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아이고 범호형

김선빈이 덕아웃에 자신의 방망이 가방을 놓다가 옆자리에 있던 이범호의 방망이 가방을 보고, 앞선 세 경기에서 안타를 신고하지 못한 선배가 안타가 왔던 김선빈은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다”며 훈련을 하러 나갔다. 김선빈에 앞서 타격 훈련을 시작한 이범호는 “방망이 필요도 없는데...”라고 한숨을 쉬면서 가방에서 방망이를 쟁겨나갔었다. 이범호는 이번 시리즈를 위해 정성껏 방망이를 골라 쟁겨왔지만 제 몫을 하지 못하면서 마음 고생을 했다. 그리고 29일 3차전 두 타석에서도 삼진으로 물러났지만, 이범호는 이날 자신의 세 번째 타석에서 중전안타를 때리며 이번 한국시리즈 첫 안타를 신고했다.

/잠실=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